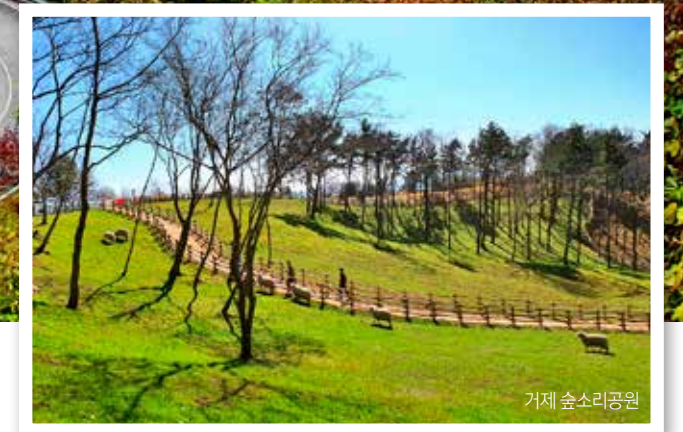




창원 드림로드



의령-한우산 드라이브 코스



거제 숲소리공원

경남 비대면(언택트) 힐링 여행지 18선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안전여행을 위한 비대면 관광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유명 관광지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많이 알려지지 않은 비대면 야외 관광지를 소개했다.

- ① **진해 드림로드(창원)** 해군테마공원 목재 문화체험장 등이 있어 가족 나들이로도 안성맞춤이다.
- ② **통영생태숲(통영)** 편백나무 등 산림이 내뿜는 청정한 공기와 전망대마다 펼쳐지는 통영항의 아름다운 모습이 장관이다.
- ③ **사천읍성(사천)** 다양한 꽃나무들이 있어 산책하기 좋다.
- ④ **백두산 누리길(김해)** 황토길과 소나무, 편백나무의 군락지가 연결돼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최상의 숲속 힐링 코스다.
- ⑤ **사자평 고원습지(밀양)** 케이블카를 타고 재약산에 올라 역사 군락지 사자평과 국내 최대 고산 습지 산들늪을 지나는 고산 힐링 트레킹이 가능하다.
- ⑥ **숲소리공원(거제)** 올해 3월에 문을 열었다. 동·식물을 모두 만날 수 있는 도심 속 휴식 공원이다.
- ⑦ **황산공원(양산)** 도심 속에서 신선한 강바람과 함께 캠핑을 즐기고,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체육시설들이 잘 갖춰져 낙동강 생태 탐방선, 미니 기차 등 즐길 거리가 준비됐다.
- ⑧ **한우산 드라이브 코스(의령)** 오색찬란한 단풍과 역사들이 반기는 곳이다. 정상에 위치한 도깨비 숲에서 도깨비를 만나보자.
- ⑨ **봉성저수지 둘레길(함안)** 독길과 숲속으로 이어지는 총 2.9km의 탐방로로, 숨은 보석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산책 명소다.
- ⑩ **관룡사(창녕)** 화왕산 자락에 있는 1천400년의 역사를 가진 사찰이다. 구룡산 단풍과 셋노란 은행나무 고목이 한쪽의 산수화처럼 방문객을 맞이한다. 창녕의 가을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다.
- ⑪ **옥천사(고성)** 대웅전 뒤 맑은 물이 나오는 샘이 있어 옥천사라 불렸다. 아름다운 단풍과 고즈넉한 산세로 가을에 경치가 특히 빼어난 곳이다.
- ⑫ **바래길 7코스-화전별곡길(남해)** 이국적인 독일마을 광장을 지나 화전변을 따라 양떼목장으로 이어진다. 아름다운 풍경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길이다. 양떼목장을 지나 내산저수지 옆 바람흔적미술관에 들러 예술작품과도 만날 수 있다.

- ⑬ **회남재 숲길(하동)** 악양골 최첨판덕~청학산사~청학동 삼성궁으로 이어지는 740고지의 회남재 숲길 10km 구간이다. 숲속의 맑은 공기와 자연 숲 향기에 취하고, 가을이면 파란 하늘과 붉은 단풍에 취하게 된다.
- ⑭ **밤머리재(산청)** 산청군 금서면과 삼장면을 이어주는 고갯길로 구름의 놀이터라 불린다. 길 양쪽에 있는 적단풍이 물감으로 색칠한 풍경화를 보는 듯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합천 홍류동계곡

- ⑮ **황매산 역사(산청·합천)** 가을이면 은빛 물결의 역사가 파도처럼 일렁이는 장관을 연출한다. 역사로 물든 평원에서 인생샷을 남겨보자.
- ⑯ **감악산(거창)** 거창읍 전경과 합천댐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자랑하는 곳이다. 등산로인 물맞이길을 따라 올라가면 종턱에서 은행나무가 아름다운 신라 시대 사찰 연수사를 만날 수 있다. 아경이 아름다운 산 정상에서 쏟아지는 별을 관람하는 것도 좋다.
- ⑰ **의동마을 은행나무길(거창)** 의동마을 입구에서 시작되는 100m 정도의 아기자기한 멋이 있는 길이다. 늦가을이면 은행잎들이 떨어져 노란 카펫을 연출해내며 하늘을 올려다보아도 노란빛으로 물들여져 있다.
- ⑱ **홍류동 계곡(합천)** 가을이 되면 단풍색으로 계곡 전체가 물든다. 신선한 가을 날씨와 계곡이 어우러져 가만히 있어도 시원한 느낌이 든다.

경남 비대면(언택트) 힐링 여행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남관광길잡이 홈페이지(<http://tour.gyeongnam.go.kr>) 공지사항과 경남도 관광 누리소통망(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